

대상 수상작: 7년의 선물

나는 2019년부터 2025년 1월까지 개복수술 두 번, 진단적 복강경 두 번의 재재발 7년 차 암 환자이다. 첫 개복수술을 하고 주치의가 수술이 잘 되었다고 웃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에 남편의 눈을 마주하기 힘들었다. 이십 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병수발만 시키고 떠나는 건 아닐까 하는 맘에, 아파도 힘들어도 크게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집안 가계엔 암 환자가 전혀 없었었다. 난소암은 급성이었고, 난소암의 위험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내게 하나도 없었다. 지난 수 개월간 엄청난 스트레스로 맘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특이사항이 있었을 뿐. 암은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되는 유전적인 병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 달리, 뭔가 이상하네 하는 순간부터 임신부처럼 배가 불러오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2018년 12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즈음, 군에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왔던 그때부터였다. 치골 위 아랫배가 평소보다 딱딱하다는 느낌이, 아들이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귀대를 하던 날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바뀌어 2019년 1월 중순부터 배에 가스가 찬 듯 불편해서 배 마사지도 하고, 핫팩으로 찜질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1~2일 보냈는데, 치골 위 딱딱하던 것이 풀어지면서 다시 위치를 바꿔서 오른쪽 옆구리에 딱딱한 것이 느껴지고 매일 커지는 느낌이 들었다. 외관상으로 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복부 전체가 팽만해지면서 더부룩함이 느껴졌다. 그제야 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찾아간 내과 병원에서,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싸한 느낌이 사지를 뻗칠 때, 큰 병일 수도 있다는 예감에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누구라도 같이 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옆 건물에 산부인과 의원이 있어서 들어갔다. 오십 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의사였는데, 질과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난소에 종양이 보이는데 크기가 10cm가 넘으니 꼭 대학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으라고 하셨다. 가실 병원이 있냐 물으시는데 눈물이 그냥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다. 말도

못 하고 고개만 가로젓는 녀 나간 여자에게 대학병원 예약까지 전화로 잡아 주시며, 본인도 암 환자였었다고 지금은 이렇게 환자도 진료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종양 모양이 매끈하게 둥글어서 양성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겠지만 너무 최악의 상황만 생각지 말라고 위로를 해 주셨다. 덕분에 몇 개월을 대기하며 기다려야 했던 대학병원 문턱을 몇 일 만에 쉽게 넘고, 긴급으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게 해 주신 그 의사 선생님은 내게 7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분이다. 그때 그 위로가 오래도록, 자책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 주었다. 누군가 암은 자신의 불찰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 같은 것이어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2019년 2월에 개복수술을 하고 난소암 3기라는 병명이 나왔다.

눈을 떴을 때 정면에 걸려있는 시계가 8시를 넘어서고 있어서 저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디에 누워있는지도,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몸과 얼굴에 있는 기구들을 뜯어내느라 분주했다. 그곳은 중환자실이었고 시간은 짐작과 달리 오전 8시쯤, 수술실에 들어간 지 22시간 만이었다. 수술은 6시간 정도로 잘 되었는데 혈압이 낮아서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쓰지 않았던 무통 주사를 달아서였는지 통증보다는 주렁주렁 달린 링거줄과 소변줄, 피 주머니, 노란 주머니로 불편함이 컸다. 개복수술이라는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도 커서 걸어야 회복이 빠르다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도 몸을 추스르기가 힘들어 모든 것이 느렸다. 수술 3주 후 첫 항암을 하고 밤마다 심해지는 관절통과 근육통에 잠을 설치고, 변비로 힘들었다. 항암하고 2주 정도가 지나면서 빠지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을 감당할 수 없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삭발하던 날 꼭 참았던 울음을 꺾꺾거리면서 울었다. 남편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왜?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4개월 만에 항암이 끝나고 머리카락도 송송 자라고 식구들이랑 아웅다웅하며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운동하며 그렇게 느슨해진 어느 날, 2년 만에 재발 진단을 받았다. 재발은 또 다른 절망으로 나를 밀어붙였다. 첫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병원과 의사의 처방을 철저히 따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특별히 신경 써먹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재발이라니....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멍하니 천정만 올려다보며 침대에서 나올 이

유를 잃었다. 항암은 더 힘들고 더 길게 느껴지고 신경은 날카로워 짜증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렇게 또 6차 항암이 끝나고 CT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로 들어섰는데, 주치의가 환하게 웃으시며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건네셨다. 이상하리만치 맘이 평안해졌다. 마치 내 상황을 다 아시는 듯 당연하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정말로 선생님이 "CT 결과도 좋고 종양표지자 수치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히 즐겁게 지내세요.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요."라고 하셨다. 순간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내가 그 걱정으로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주시다니..... 그렇지, 환자가 병을 고민한다는 건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내 걱정은 이제부터 선생님 거야~~^^ 그렇게 내 우울은 걷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 난소암 편 방송에도 출연하며 나뿐만 아니라 난소암 환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 아픔만 들여다보며 우울하게 앓다가 의미 없이 죽을 수도 있었던 내게, 알차게 영어를 드는 7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또 한 분 주치의 선생님이다.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재재발 환자가 되었다. 울지도, 우울해지지도 않을 만큼 내 정신은 강하고 자유로워져 있어서 큰 절망 없이 그대로를 받아드리며, 또 항암하고 수술하고 모든 것은 신과 주치의에게 맡기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붙여 둔 이 글을 쥘 먼저 보게 된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붙여 둔 글인데, 이 글에서 나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삶을 사는 건 힘든 일이 대부분이라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불편할 뿐, 내 삶이 흔들리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스스로 다독여 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투병하면서 새롭게 엮은 내 시간은 50년을 살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냈다.

오십 대 후반 세대의 삶 속에는 IMF와 외환위기가 있었다. 그 후유증은 길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까 봐 그걸 지켜내느라 오래도록 삶은 고단했다.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다. 오십 줄에 공부라니 그것도 투병 중에 무리였지만 가슴 설레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잊게 해주었다. 재발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영양사 면허증도 따고, 석사학위도 받고, 암 환

자들의 식이공부를 하면서 사찰음식 전문자격증까지 땀다. 아마 아프지 않았더라면, 죽음과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해 보지 못했을 일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주위 분들로부터 '아픈지 몰랐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 7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준 사람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간 배운 것을 응용하면서 제철 디저트 카페를 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진료실 문을 나서며 3개월 치 시간을 받았다는 기분 좋음에 미소가 번졌다. CT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면 7년째이면서도 적응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매번 떨린다. 마치 성적표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돌이켜보면 7년 전 2019년 1월 처음 난소암일 수도 있다는 의사소견을 듣던 날이 선명하다. 눈물이 후드득 떨어지던 그 날의 절망은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그런데 수술과 항암, 재발의 시간을 지나 7년 차에 접어들었다. 난소암 3기 5년 생존율이 20~40%라는 통계 속에 있지 않은 환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라는 기적을 나는 지금도 맛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7년 차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고마운 의사 선생님들과 연구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갈 나 자신을 응원한다.

※ 신촌세브란스 부인암센터- 이정윤 주치의 선생님과 연구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그간 전하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